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 건 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별나기로 소문난 것 중의 하나가 명절이나 연휴 때 도로가 자동차로 넘쳐나 자체되는 현상이다. 명절 때 자동차로 서울에서 지방의 거점도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연휴 때 주요 관광지에서 귀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방송의 뉴스로 보도되는 나라이다.

정성을 확보한 대량수송수단인 철도 확충은 등현시한 채, 도로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해 온 당연한 결과이다. 도로는 1970년 4만244km에서 2010년 10만5565km로 2.6배 증가한 반면 철도는 1970년 3193km에서 2010년 3557km로 1.1배 증가해 그쳤다. 철도 연장은 도로의 1/33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철도망은 일제 시대에 건설된 것에 고속철도만 추가된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철도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교통정책에 성공한 나라이 평가받는 영국과 프랑스는 철도연장이 도로연장을 웃도는 수준이다. 유럽연합으로 출범하면서



분석되고 있다. 동시에 철도는 고유가시 대에 적정 교통수단이다. 같은 수의 사람을 수송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철도에 비해 버스는 5.5배, 택시는 15.7배이며, 화물 운송 시에는 도로는 철도의 15.8배에 달한다.

늦었지만, 우리도 교통체증 해소, 친환경적 녹색성장전략 추진,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해 철도 중심 교통정책으로 회귀하는 철도네상스 대를 열어야 할 때다.

먼저, 정부가 철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철도 중심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할 때

인근 일본 또한 철도와 도로 연장이 비슷한 수준이며, 도로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미국의 경우도 도로가 철도연장의 2.3배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도 내륙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늘길'이라는 이름의 '천장철도'부터 구축해 낙후지역인 티벳개발을 진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철도는 녹색성장시대에 적합한 교통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는 철도에 비해 대기오염비용이 3배 이상, 교통사고비용은 646배에 달해, 도로의 사회적 비용은 철도에 비해 40배 이상인 것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고유가시대에 부합한 교통망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공항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정책의 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가 신선으로 건설되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고, 해저터널을 통해 수도권의 한·중터널과 영남권의 한·일터널과 함께 호남권의 전남·제주간 터널이 개통되면 한반도 3대 해저터널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조컨대, 도로와 철도간 불균형과 교통수단간 연계체계의 취약성을 개선해 철도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상징적 조치로 호남고속철도가 신선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제주까지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어야 한다. 대규모 교통프로젝트인 민관 합동장의 건설비용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면, 무안공항에 대한 접근도 제고로 인해 수요가 대폭 창출되어 무안공항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저철도 확충 추세에 힘입어 호남고속철도를 제주까지 연결하는 목표~제주간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이 대륙과 대륙, 대륙과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했거나 구상 중이다. 거기고교, 영·불해협의 유로터널, 일본 세이칸터널 등이 건설되었고, 한·중터널(중국·威海~인천), 한·일터널(부산~후쿠오카), 베링해협터널(러시아~알래스카) 등이 구상 중에 있다. 수도권의 한·중터널과 영남권의 한·일터널과 함께 호남권의 전남·제주간 터널이 개통되면 한반도 3대 해저터널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조컨대, 도로와 철도간 불균형과 교통수단간 연계체계의 취약성을 개선해 철도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상징적 조치로 호남고속철도가 신선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제주까지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어야 한다. 대규모 교통프로젝트인 민관 합동장의 건설비용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김정호

사법부 비판 영화가 주는 통쾌함과 불편함

다. 그러나 필자는 솔직히 두 영화를 보고 '통쾌함'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웬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먼저 필자가 '도가니'에 대해 다소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이유는 극적 재미를 위해 가공한 몇 가지 허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관람객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인식돼 사법부와 법조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 맹목적인 비난과 불신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가니'에서는 1심 재판과정에 부당판사 출신 이른바 전관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해 변론하면서 담당판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듯 묘사되고, 심지어 담당검사는 결정적 증거인 성폭행 장면이 활영된 동영상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불의에 타협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영화에서 나오는 재판장과 친분이 있는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중요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검사는 영화의 극적 재미를 위해 추가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 뿐인 것이다. 도가니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

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재판부의 양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항소심 담당검사는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실형을 구형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자신의 일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관람객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인식돼 사법부와 법조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 맹목적인 비난과 불신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리진 화살'은 판결에 불만을 가진 김 전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간 의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없이 김 전 교수를 부정한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날린 영웅으로 만 묘사했다. 국민은 거대권력 앞에 미약한 개인에 불과한 김 전 교수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석궁을 들고 판사의 집에까지 찾아간 배경에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근거한 '번법치주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영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화되기 전 책을 통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부리진 화살'의 작가가 사법부와 너무도 닮아있는 김 전 교수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자신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고집불통의 간간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영화의 의도와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권위(사법부)에 도전하는 또 다른 측면의 권위주의자(김 전 교수)가 '영웅'이 될 수는 없다는 불편함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영화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법조계를 비판하는 영화에 호응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도가니'와 '부리진 화살'의 힘행 성공은, 그만큼 현재 사법부의 정성성을 불신하고 의문을 던지는 사고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침에 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하는데, 이 같은 최종적인 갈등 해결 구조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법조계가 '도가니'와 '부리진 화살'이 국민에게 주는 '통쾌함'을 인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낮은 자세로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록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고,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통쾌함'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분명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로써 스트레스해소와 기억력회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심신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필라테스는 지방연소 운동이 아니지만 체중감소 등 다양한 운동효과가 결합한 체력 소모가 필요한 여타의 운동법에 비해 결코 뛰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련을 통해 평소 순환이 잘 되지 않은 곳에 축적되었던 지방이 사라지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체적 운동효과 외에도 복잡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과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긴장을로부터 신체리를 회복하고 조화로운 동작을 통해 신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라테스를 통해 신체를 균형있게 발달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동신여고 교사·체육학 박사>

기고



나영옥

심신 건강 찾아주는 필라테스

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학생들마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어야 한다.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 있겠지만 필라테스는 성장기 학생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개선시켜주고 대칭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신체의 균형을 이를 수고하고 운동요법이다.

필자가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에 필라테스 지도자과정을 개설한 후 하리 통증을 호소하던 수련자들의 각종 통증, 여성 생리통, 요실금, 남성 전립선증세 등이 크게 호전되었다. 또한 디아이트와 체형교정에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발하는 각종 원인의 유통은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키고 강

화시켜주는 '파워하우스'라는 척추분절운동으로 인해 크게 호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필라테스는 원래 1차 세계대전 당시 뛰거나 달릴 수 없는 포로수용소의 매우 재한된 공간에 수용되어있었던 포로들의 재활치료와 전쟁포로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정신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정신수련을 위해 창안된 운동요법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수련할 수 있으면서도 신체 각 부위별 운동에 따라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의 역동적인 체중감량과 체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입증됐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훈련을 통한 호흡법은 신체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킴으

려면 농산물을 마트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들도 농촌에서 사값 때 최대한 값을 깎아서 싸게 사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이 시장가격부터 크게 낮추어 팔면 가격 인하 끝은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인 농민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일반 공산품이야 1년 내내 대량생산 하므로 값이 내려도 웬만한 만회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한철에만 생산하는 농산물을 특성상 가격 하락분을 만회할 길이 없다. 또 농산물을 미끼상품화하는 시장가격의 폭과 현상을 초래한다. 공산품의 값은 만드는 사람이 정해서 팔면 되고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민규·목포시 수강동

대형마트 농산물 끼워팔기 즉시 중단해야

아내와 함께 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음식 거리를 사려 마트에 갔다. 김, 돼지고기, 명태포 같은 것을 좀 고르고 나서 돌아다보니 햄을 파는 곳에 파랗고 예쁘게 생긴 호박이 둑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햄에 호박을 물여서 한 끊임으로 만들어놓고 팔고 있기에 점원에게 저거 햄을 사면 호박도 덤으로 주어서 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호박은 공짜로 주는 거라며 한 개 사서 가라는 것이다.

그 순간 농촌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이 떠올라 속이 상했다. 햄을 팔기 위해 농산물을 미끼로 끼워넣은 것을 보니 농민들이 괴롭 흘려 키운 농작물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 물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야 한두 푼이라도 아끼려고 편지를 찾는 햄을 파는 곳에 괴롭고 예쁘게 생긴 호박이 둑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햄에 호박을 물여서 한 끊임으로 만들어놓고 팔고 있기에 점원에게 저거 햄을 사면 호박도 덤으로 주어서 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호박은 공짜로 주는 거라며 한 개 사서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을 마트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들도 농촌에서 사값 때 최대한 값을 깎아서 싸게 사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이 시장가격부터 크게 낮추어 팔면 가격 인하 끝은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인 농민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일반 공산품이야 1년 내내 대량생산 하므로 값이 내려도 웬만한 만회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한철에만 생산하는 농산물을 특성상 가격 하락분을 만회할 길이 없다. 또 농산물을 미끼상품화하는 시장가격의 폭과 현상을 초래한다. 공산품의 값은 만드는 사람이 정해서 팔면 되고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민규·목포시 수강동

시설

여수박람회 D-26 성공 개최 만전 기하자

여수세계박람회가 16일 현재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경제·문화올림픽이다. 93일간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 민국 남해안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국민 관심, 역량 결집은 필수조건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다. 반도국가 대한민국과 여수가 해양국가,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조직위 등을 '불거리'와 교통·숙박시설 확보,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남은 26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수는 각종 인프라 등 지역

자도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돼 선거사법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법 선거가 극복되지 않아 안타깝다. 사법당국은 강력하고 신속한 처리를 전명한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91명으로 18대 총선의 85명(구속 3명, 불구속 82명)이 이미 넘어섰다. 검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당선자만도 광주 4명, 전남 1명 등 모두 5명이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부수에 흥행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하게 되고 당사자와 해당 분야 업무 효율도 떨어뜨리게 된다. 법의 판단에 따라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낙선자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며,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다면 대·불법이 다시는 선거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례로 볼 때 수사·재판에서 수개월씩 걸리는 등 '늑장 결론'이 났던 게 사실이다.

선거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하게 되고 당사자와 해당 분야 업무 효율도 떨어뜨리게 된다. 법의 판단에 따라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리스의 국민적 영웅이 된 스파르타 전사들의 신화는 프랭크 말리의 실감나는 그림피 노블(graphic novel)과 책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300'으로 널리 알려졌다.

4·11 총선 결과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